

실리외교 중요성 커져… “韓, 미·중 갈등시대 잘 이용해야”

공급망 리스크

특정국가 의존 시 산업전반 영향 정부, 다변화·자립화 등 전략대응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내놓은 전략은 다변화, 자립화, 자원 확보 등 3가지가 골자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장관 주제로 포스코퓨처엠, 켄코 등 업계와 함께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어 이달 11일엔 공급망 연구개발과 핵심광물 비축지원을 각각 4배, 6배 확대하는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수입 의존도와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 185개(잠정)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은 국내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1719개 품목의 10% 수준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이 반영됐다. 최종 품목은 1분기 중 최종 확정된다.

이를 위해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해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자립화를 위해선 국내 생산시 경제성이 낮은 품목은 지원하는 반면,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해선 규제 등 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 예산은 739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핵심광물 비축 예산도 2331억원으로 늘린다. 리튬은 기존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 용 희토류는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체 도입을 촉진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과 수입보험 우대를 지원하는 한편,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확대한다. 해외 핵심광물

업종	품목수	대표품목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17개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등
	이차전지	19개	수산화리튬, 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분리막·파우치 등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23개	FMM, OLED 발광소재, 멤브레인, 바이오배지, DC모터 등
주력·신산업	자동차, 조선	24개	희토영구자석, 와이어링 하네스, 자율주행칩, 선박용 열교환기 등
	기계, 로봇, 항공	24개	산업용 로봇, 무인운반로봇, 수치제어기 등
기초 소재 산업	금속(철강, 비철금속)	29개	마그네슘, 니켈, 알루미늄, 티타늄, 팔라듐 등
	섬유	16개	탄소섬유, 공중합 아라미드 섬유, 분산섬유 및 그 중간체 등
	세라믹	16개	산화코발트, 공업용 천연석영, 내화성노즐, 흑연막대, 광섬유 등
	화학	17개	요소, 무수불산, 브롬, 이산화티타늄, 무수암모니아 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용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늘리는 등 다변화를 지원한다.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석유·가스 비축 확대와 함께 용자·세제 지원 확대, 자원 개발 고도화 연구개발 예산 착수 등으로 자원개발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2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산업계 등 민관 공급망 협력체계도 구축해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외교 등 대응전략 관련

다만, 공급망 리스크가 주로 중국의 수출통제 요인이 큰 만큼 중국에 포커스를 둔 전략적 접근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전략은 잘 짰고, 상당히 좋다.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를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중국에 너무 의지하다보니 생긴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 중국 제품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로”라며 “중국과의 신뢰

외교를 통해 외교적으로 윈윈해야지 너무 미국이나 유럽에 치우쳐 움직이면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외교적인 노력 강조 “미·중 등 원원관계 구축 중요 ‘메이드 인 코리아’ 전략 펼쳐야”

강 교수는 “홍해 하마스 사건이 1월에 터졌는데, 공급망은 변수가 많고 그래서 공급망 대응의 첫번째는 외교”라며 “민간이든 정부든 해외에 나가서 자원을 확보하는 통상 교역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해외 기업을 찾아가서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실리외교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수출통제에 대응해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

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수출통제 주무 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대 중국 수출통제 조치 도입을 설득할 것을 권고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전 세계에서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의존도가 높다”며 “다변화 등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일부 중간재 등을 지렛대로 공급망 맞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더 많아진 점을 감안해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전 성균관대 교수)는 “한중 양국의 중간재 수출을 보면, 2021년까지 한국이 더 많았지만, 이후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더 많아지면서 공급망 역할이 바뀌었다”며 “한국이 중국 중간재를 수입해 글로벌에 파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대중국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이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미중 공급망 패권 경쟁 상황을 이용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중국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내 최종 생산이 막히자 베트남 등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제3지대 공장을 찾는 중국 기업을 유치해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글로벌에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동남아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한다”며 “미중 갈등 시대를 한국이 잘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中 수출통제…’서 계속

지정학적 불안정 지속 中 小 企 등 지원방안 필요

이어 “제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은 원자재를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원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전쟁과 미중 수출통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환경규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노력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기현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의 극단적 공급망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각종 수출통제 등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을 확대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 재고확보 등 시급한 공급망 이슈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규제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도 공급망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면서도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갑진년 첫 수출성과 好好… 반도체 50% 이상 증가

1월 546.9억달러… 전년대비 18% ↑ 반도체 수출액 3개월 연속 증가

새해 첫 달 수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고, 대 중국 수출도 오랜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수출 증가폭이 큰 건 1년 전 수출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8.0% 증가한 546억90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2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5.7% 증가했고, 수출물량은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년 전 수출액은 전년동월(2022년 1월) 대비 16.6% 감소한 462억7000만달러로 직전 2년간 최저 수준이었다.

수출품목별로 15대 주력 수출품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93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다만, 1년 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4.5% 급감한 60억달러였다.

자동차 수출은 24.8% 증가한 62억1000만달러로 2022년 7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컴퓨터(+37.2%) 수출은 2022년 6월(+10.0%) 이후 18개월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고,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됐다

9대 주요 시장 중 CIS(-5.2%)를 제외한 8개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106억9000만달러다. 대 중국 수출은 2022년 1월 133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월 31.4% 급감한 91억7000만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이밖에 미국 102.2억달러, 아세안 87.6억달러, EU 57.0억달러,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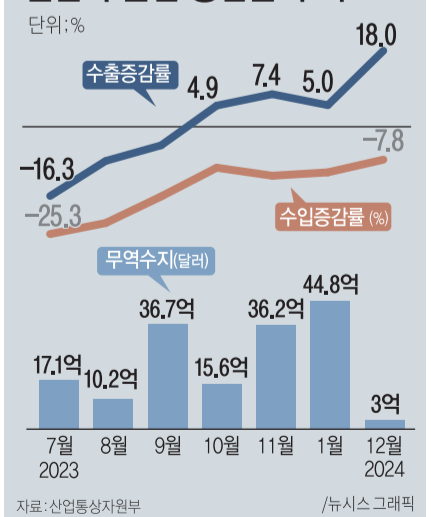
25.4억달러, 중남미 21.9억달러, 중동 16.7억달러, 인도 15.3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7.8% 감소한 543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0억달러 흑자다.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반도체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 조선 등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도 밝다”면서도 “2월은 설 연휴가 있고 중국 춘절 영향도 있어 2월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수출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대중국 수출 회복이 기저효과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 정책관은 “작년 8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월별 수출입 증감률 추이



을 넘기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 수출의 40%인 IT 업황이 1분기는 약간 비수기고 이후 업황이 회복되고 수출이 확대돼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